

제17기 박물관대학
박물관의 탄생

타자박물관의 탄생과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 : 베를린 민족학박물관

이 용 일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

타자박물관의 탄생과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 : 베를린 민족학박물관

이 용 일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

I. 타자박물관과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

박물관은 그 태생부터 본질적으로 ‘타자박물관’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유구한 유산들과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진귀한 물품들과 예술품들을 개인적으로 소장·전시했던 후기 르네상스시기 유럽 왕족들과 귀족들의 경이의 방(Wunderkammer)과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이 그러했고, 이후 서양근대의 거대한 사회적 변혁들 속에서 출현한 ‘공공박물관들’ 역시 세계의 위대한 문화유산들과 예술품들을 수집하거나 약탈해, 자국의 위엄과 정체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그것들을 자신들의 문화 속으로 전유한 타자박물관이었다. 무엇보다 서구의 자연사박물관, 민족학박물관, 인류학박물관, 지리학박물관은 진화론적 원칙들에 근거해 타자-역사 없는 자들로 간주되었던 미개한 비서구인들-의 문화를 시각적·지식적 형태로 만들어 재현했던 타자박물관의 전형이었다. 특별히 민족학박물관과 인류학박물관은 제국주의 시대에 생겨나 -식민지배자들과 식민지 주민들 모두에게- 유럽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일조했던 ‘식민박물관’이었다. 그럼에도 독일 민족학박물관들은 여타 서구의 ‘식민박물관들’과는 달리 식민주의적 혐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것은 “식민주의 2진(Sekundärer Kolonialismus)”으로 평하기도 하는 독일제국의 빈약한 ‘식민지볼륨’, 즉 짧은 식민지배의 역사와 작은 식민지총면적 때문이었다.

실제 베를린민족학박물관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관장이 되었던 민족학자 아돌프 바스티안(Adolf Bastian)은 학문성을 표방하며 베를린박물관이 민족학 연구기관이자 아카이브로 발전하기를 열망했다. 그럼에도 과연 초기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이 정치성과 대중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순수한 학문성을 실현 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여전히 민족학이 ‘대학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공공기관을 통해 민족학을 발전시켜야 했던 독일의 ‘박물관 민족학자들’에게는 정치성과 대중성, 정확히는 제국주의와 소비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박물관을 통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독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 영향은 식민지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간접적이었고,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식민주의’보다 더 위력적이었다: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Colonial Cosmopolitanism).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이 모순어법은 오늘날 ‘다문화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한계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뿐만 아니라, 즉 서구근대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식민적 근대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 뿐만 아니라 있는 세계관이다. 태어나고 자란 로컬문화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시민적 지식인’은 세속적 근대성의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영어권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19세기 초였다. 이 시기는 바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팽창기였다. 민족국가의 형성이 팽창하는 유럽중심의 세계체제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민족주의 내지 식민주의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나머지세계와의 서구적 접촉이 전제가 되었고, 이 접촉은 식민주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곧 민족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또한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족학박물관의 실질적인 지지계층이었던 독일의 교양부르주아지들은 외적으로 상호 모순적인 것들을 별 큰 어려움 없이 내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었던 식민적 세계시민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하던 독일민족국가를 직접 목도했던 마이네케 역시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모순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잘 간파했다: “...독일 교양계층에 의해 항상 존중되었던 견해는 진정으로 가장 훌륭한 독일 민족감정은 초인간적 인간성이라는 세계시민적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독일적이고자 하는 것은 비독일적이다》라는 견해이다.”¹⁾

세계열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만들어낸 독일 최초의 민족국가였던 독일제국 안으로, 더 정확히는 -‘독일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교양부르주아들이 만들었던- 민족학박물관이라는 공간 속으로 세계가 성큼 들어왔고, 그 세계는 경이와 호기심, 희망과 열망, 그리고 낯섦과 혐오, 두려움과 위기로 채색되었다. 독일 민족박물관들의 탄생은 근대적 기획으로 시작된 세계화에 대한 독일 교양부르주아들의 대응들 중 하나였다.

1)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이상신·최호근 옮김,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나남, 2007), 42쪽.

Ⅱ. 부르주아교양계층과 베를린 민족학박물관의 탄생

민족경계를 넘어서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거대한 제국을 열망했던 신생 독일제국은 세계화로 촉발된 거대한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부르주아교양계층(Bildungsbürgertum)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그들은 독일 민족주의로부터 그들의 인문주의적 교육이념의 자양분을 받으며 독일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주요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젊은 부르주아교양계층들은 독일 제국주의의 첨병역할을 했던 식민협회, 전함연맹, 전독일연맹 등을 주도적으로 만들며 “공격적인 세계정치”로의 전환에 앞장섰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종류의 열정(eine spezifische Art von Pathos)”²⁾, 즉 민족적 패권국가(nationaler Machtstaat)로의 도약이라는 독일적 비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세계경제(Weltwirtschaft), 세계정치, 세계열강(Weltmächte)이 독일제국에서만큼 과도하게 외쳐지는 곳도 없었다. 이미 세계제국이었던 영국에서는 -마치 가진 자의 여유처럼- 세계라는 수식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다.

분업화된 세계경제체제안의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던 독일제국의 세계화는 시대적 대세였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부르주아들은 내부적 결속과 세계화, 더 정확히는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원공급지이자 상품시장으로서 식민지의 경제적 필요성과 식민정책의 선전을 위해서 학문성과 세계시민성으로 채색된 민족학박물관은 최적의 공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공공 민족학박물관들이 독일 지역들에서 경쟁적으로 들어서게 된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론 많은 민족학자들과 부르주아 관객들과 후원자들이 표방했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자민족중심적이고 유럽중심적인- 식민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사안들마다 ‘갈지자행보’를 보이며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을 추동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익, 그것도 중심을 향한 후발주자로서 독일의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독일민족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인류사의 근원을 캐는 작업 역시 그 누구도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독일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였다. 마치 “독일적인 것에서 세상이 치유되어야 한다(Am deutschen Wesen soll die Welt genesen)”라는 오래된 독일 민족주의 슬로건처럼, 그렇게 독일 민족학박물관들은 다른 여타나라들,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의 인류학박물관들과 식민박물관들과는 구별되는 독일적인 것이었고, 인류정신의 세계사를 밝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져야 했다.

2)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Tübingen, 1922), p. 226.



베를린 민족학박물관(1900/1910)

비스마르크가 ‘식민지전환’을 선언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의 많은 식민지와 보호령을 획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1886년 12월 18일 베를린 시내 중심부에 왕립민족학박물관이 성대하게 개관했다. 새 건물은 헤르만 엔데(Hermann Ende)의 설계로 7여년의 공사 끝에 지어진 웅장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새 민족학박물관의 건립은 독일통일 이후 프로이센 문화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박물관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제국수도인 베를린을 파리와 런던과 같은 유럽 열강의 수도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면 이 야심찬 기획은 통일 후 베를린의 박물관전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기획에 따라 1776년 국립미술관이, 그리고 1881년 예술박물관이 슈프레 강변 섬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5년 뒤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이 개관했는데, 당시 독자적인 건물을 가진 민족학박물관으로는 독일에서 유일했다. 이 시점을 베를린박물관의 시작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베를린박물관의 시작은 1830년부터 왕립 프로이센 박물관들에 흘어져 있었던 민족학 분설이 독자적인 박물관으로 승격되고, 바스티안이 초대관장으로 부임했던 1873년으로 보고 있다. 조금 앞서서니 뒤서거니 하면서 독일의 다른 대도시들에도 유행처럼 민족학박물관들이 들어섰다: 뮌헨(1868), 라이프치히(1874), 드레스덴(1875), 브레멘(1876), 함부르크(1879). 이렇게 건립된 민족학박물관들은 ‘글로벌 제국도시’를 꿈꾸는 독일 대도시들의 자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여행가들과 탐험가들의 여행기와 문학의 소비층이었던 도시 부르주아들은 박물관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정부와 지방정부에 계속적으로 민족학박물관설립을 요청했다. 그리고 박물관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들은 익명의 컬렉션기부자로서 혹은 현지대탐사의 재정적 지원자로서, 박물관의 관람객으로서, ‘박물관민족학자’로서 민족학박물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독일의 많은 민족학박물관들 가운데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은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는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도 특별한 위치를 점유했다. 사실 문화·예술, 학문 등은 각 주정부의 소관이었기에 -연방주의 전통은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베를린민족학박물관 건립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일주체였고, 통일된 독일제국 영토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인구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던 프로이센 주는 다른 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을 독일을 넘어 세계 최대의 민족학박물관으로 발전시켰다.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이 ‘박물관들’ 중의 ‘박물관’으로 불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독일 민족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바스티안의 민족학적 철학이 민족학박물관 속에 녹아들어 갔고, 그러한 ‘박물관개념’이 다른 독일 민족박물관들의 발전에 전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1873년부터 1905년까지 관장으로 재임했던 바스티안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변이형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들이 박물관에서 추구되어진다고 믿었다. 그는 박물관이 인류사의 경험적인 발자취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고, 인간 혹은 인류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고 실험하는 곳이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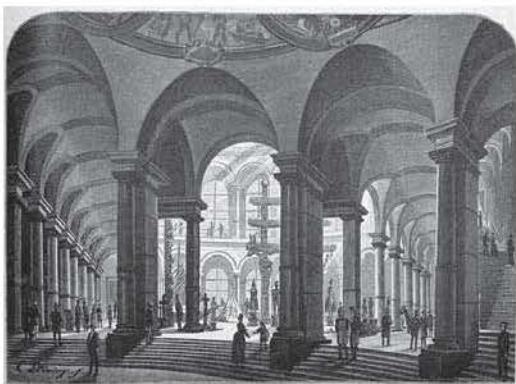
III. 학문기관과 식민박물관 사이의 베를린민족학박물관 : 바스티안의 실험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은 순수한 비유럽의 미개한 민족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자국을 위시한 유럽의 고대유물도 전시하고 있었다. 베를린 민족학박물관은 2개의 분과, 즉 민족학분과와 선사고대분과로 나뉘어져, 민족학분과는 바스티안이 주관했고, 선사고대분과는 한때 그의 조수였던 알베르트 포스(Albert Voß)가 1886년부터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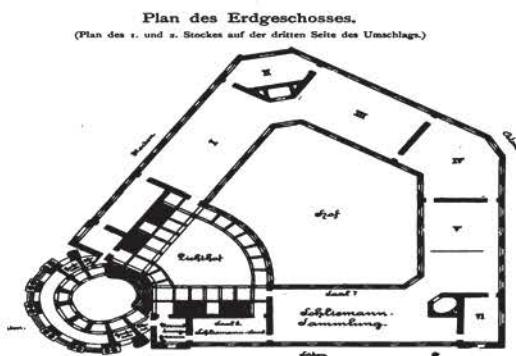
“민족학관은 고대 지중해문화 중심의 세계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민족들의 인간적 특징들을 그들이 사용했던 제례기구, 주방기구, 무기, 수렵도구, 농사기구, 연장과 의복, 장신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다른 모든 종류의 기념비들을 통해 그 특유의 발전과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미개민족들의 산물들, 그 다음 인도와 그 이웃나라들의 자생적 문화들, 아시아와 고대아메리카의 문화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이전 시대들의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들 또는 점진적인 발전 속에서 민족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선사시대와 고대의 유물들은 초기부터 기독교 개종까지, 그리고 역사시대 이후의 유럽민족들의 기념비들과 유산들을 망라하고 있다. 히살리크의 슬리만 유물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³⁾

1층 입구의 거대한 기둥들과 아치 뒤에 위치한 채광을 위한 유리지붕으로 한 박물관 로비(Lichthof)에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기념비적인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특별히 일본의 육중한 황금 아미타불상, 로비 우편에는 바바-자가라 불리는 거대한 러시아석상이, 독일의 각 지방들에서 출토된 거대한 거룻배들이 배치되어 관람객의

3) Generalverwaltung der königlichen Museen zu Berlin, *Führer durch das Museum für Völkerkunde*(Berlin, 1898), p. 2.



베를린민족학박물관 로비(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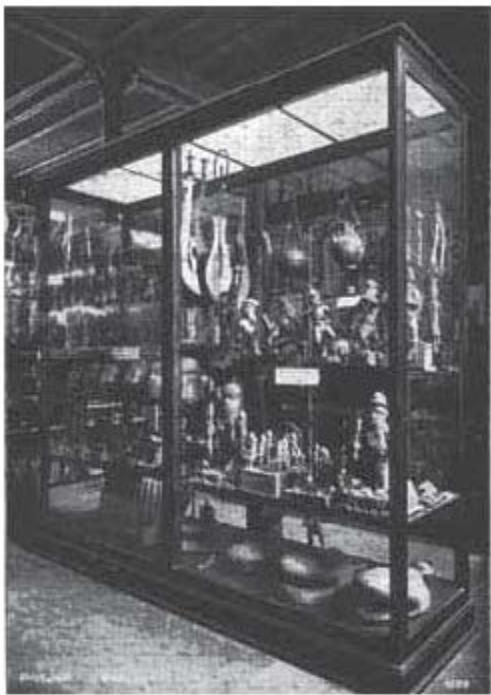


베를린민족학박물관 1층 조감도(1898)

높은 계단을 올라 2층과 3층의 전시물을 보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민족학에 대한,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 이끌렸다기보다 휴일 시내를 거닐다 우연히 박물관을 관람했던 부르주아 산보객들이 그런 부류에 속했다. 시내 중심에 위치했던 박물관은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났다. 박물관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관했다. 월요일은 휴관했고, 일요일 개관시간은 계절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4월 ~ 9월 12시-6시, 10월과 3월 12시-5시, 11월과 2월 12시-4시, 12월 ~ 1월 12시-3시. 시내 중심부에 새로 들어선 민족학박물관은 베를린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문화적 공간’이 되긴 했지만, 박물관 자체는 관람객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관람객들이 본격적인 민족학 컬렉션을 보기로 전에, 1층의 로비와 전시관들만 둘러보고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사실 1층에 독일 지방의 고대유물들과 슐리만의 트로이유적을 배치한 것은 돈줄을 쥐고 있었던 프로이센 문화부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애국심과 충성심의 발로였다. 실제적인 민족학박물관의 핵심유물들은 2층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하인리히 슬리만의 '트로이유적'이었다. 자신의 발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피르호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슬리만이 히살리크 언덕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대부분을 박물관에 기증했고, 이것들은 1층 특별전시실에 전시되었다. 1층에 위치한 나머지 6개의 전시실에서는 독일과 유럽의 다른 고대유물들이 전시되었다. 2층은 아프리카관, 오세아니아관, 아메리카관, 3층은 인도관과 동아시아관이 위치했다.

비유럽 미개민족의 문화를 주로 전시한다는 민족학박물관의 원래 목적과 실제 세기말 박물관의 공간적 구성과 배치는 다소 상반된 것 같아 보인다. 순수한 민족학 컬렉션들만이 아니라 자국과 유럽의 고대유물들이 전시된 것도 그러하지만, 이들이 핵심전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시관들을 독차지했던 것이 틀이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관람객들은



베를린민족학박물관 전시진열장(1914)

전시되었는데, 이 전시관들은 일반관람객들이 아니라 전문관람객들 '민족학자들과 전공학생'들을 위한 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2층의 유물들과 자료들은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진열장에 배치되었는데, 큰 창문과 유리천장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채광이 이루어졌다. 정보를 잘 아는 관람객들이 공간적으로 잘 조직된 전시실들을 쉽게 움직이며 전체 지역들에 대한 개략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시간들과 장소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을 정신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했다. 이러한 배치는 19세기말 예술박물관, 식민박물관, 전시회들에서 보는 것들과는 근원적으로 달랐다. 영국이나 미국 박물관들에서 보여지는 진화론이나 발전 단계에 따른 전시물의 배치가 '바스티안의 박물관'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유물전시를 통한 교육적 기능 역시 이곳에서는

주변적인 것이 되었다. 바스티안에게 있어서 민족학박물관은 학문적 기관으로, 민족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많은 민족학적 자료들과 유물들을 수집, 보관하는 일종의 아카이브였다.

민족학이 대학학문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을 때, 박물관은 대학을 대신해 많은 학자들을 트레이닝하고 필드작업과 연구수행을 돋는 제도권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여기서 많은 민족학자들은 연구와 헌지탐사를 위한 여러 재단들로부터 들어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자연과학에서 학문적 커리어를 시작했던 이들 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비로소 민족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박물관을 통한 바스티안식 실험 역시 민족학의 처한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가 민족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정신의 근원이었다. 그에게 민족학이란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인간정신의 근원을 찾는 인간학의 다른 이름이었다. 바스티안은 이러한 인간학으로서 민족학 연구를 위하여 근본정신(Elementargedanke)과 민족정신(Völkergedank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문화들은 공통적으로 근본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즉 각 민족, 종족마다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가장 근본적인 것, 즉 근본정신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문화의 환경과 역사, 문화적·정신적 접촉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들, 즉 민족정신들로

나타나게 된다. 민족학의 과제는 인류의 공통되는, 보편적 근본정신을 알아내는 것이고, 그 방법은 각 문화들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어 있는 민족정신들을 비교분석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즉 근본정신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바스티안은 이러한 근본정신을 얻기 위한 전제가 되는 민족정신들을 가장 잘 관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미개민족들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민족학의 존립 이유가 되었다. 물론 미개민족에 대한 자신(혹은 민족학)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독일인들, 더 나아가 유럽인들의 ‘고급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즉 박물관을 통해 민족학을 한다는 것, 즉 미개민족들의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박물관 로비에 진열되었던 자신들의 과거와 미개민족들의 현재는 -전혀 다른 의도로 배열된 것이지만- 많은 관람객들에게 독일 내지 유럽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스스로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했다. 미개민족들의 민족정신 비교분석을 통해 인류 공통의 근본정신을 찾는 작업은 다시금 진일보한 문화적, 역사적 발전 속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진 자신들의 민족정신을 찾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 민족학적 과제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교연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양의 민족학 자료들의 수집이었다.

바스티안의 박물관은 그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박물관이 되었다. ‘세계학문’으로 포장된 -민족정신을 찾는- 자기정체성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바스티안은 가능한 한 적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의,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민족학적 자료들을 소장한 민족학박물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다. 그 결과 베를린 민족학박물관은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대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었다.

학문성과 세계성으로 채색된 베를린민족학박물관의 실험은 부르주아지 엘리트들에게 존재했던 식민지적 환상을 일깨우고, 그곳에 내재되어 있던 제국적 욕망을 자극하며 독일 제국주의를 주동하는 역할을 했다. 특수한 개별문화들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정신을 찾고자 했던 베를린박물관의 실험은 독일 교양부르주아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바스티안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정체성학교의 학생들은 가장 특수한 것을 보편의 자리에 앉혔을지 모른다: 독일 민족정신이 곧 인류의 근본정신이다. 여기가 바로 보편주의를 표방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식민주의를 만나는 지점이다.